

1.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세기 프랑스 화가 푸생(N. Poussin)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인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 고사 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크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크 미술이 주로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지적인 사고가 결여*된 예술 활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연성과 변화무쌍함을 멀리하는 대신,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영원불변성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의 고전성에서 미의 원리를 찾고자 했다. **왜냐하면** 푸생은 이성이 자연의 보편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고대 그리스·로마의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고대 예술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② 그래서 고대 예술의 주된 대상인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으며, 그것을 서사*의 차원이 아닌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다. 또한 작품 속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고대 조각상 중에서 자신의 표현 의도에 ㉠ 맞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을 골라 **인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화면은 오로지 이성의 법칙에 입각한 균형과 대칭, 선이나 도형 등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짜임새 있는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고 했다. 이는 자연의 영원불변한 본질을 조화와 질서라고 생각하여 이를 그림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③ 이와 같은 **표현 원리**들을 통해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자 한 푸생의 노력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풍경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풍경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삶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의 풍경에는 자연 배경과 특별히 선택된 건축물이 등장한다. 작품 속 자연 풍경은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푸생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자연의 이미지이며, 고대의 건축물 역시 배경의 일부로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전경, 중경, 후경의 명백한 구분과 좌우상하의 대칭, 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인 공간 이행, 수평과 수직의 기하학적 질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 **따라서 그는 영웅적 인물의 삶을 소재로, 자연에서 위대하고 특별한 것만을 선별하여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④ **이처럼** 푸생은 작품 제작에 있어 자신이 정한 표현 원리들을 명료한* 법칙으로 규정하여 모든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예술은 의식적인 작업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감상자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이라기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보기



이 그림은 푸생의 '세월이라는 이름의 음악과 춤'이다. 그림의 오른쪽 기둥 옆에는 시간의 신, 왼쪽에는 젊음과 늙음의 두 얼굴을 가진 아누스 석상, 양쪽 아래에는 아기 등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원형으로 둘러서서 춤을 추는 인물들은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옷차림에 따라 '봄(부)', '여름(즐거움)', '가을(가난)', '겨울(힘겨움)'을 각각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의 본질을, 그리고 '부'와 '가난', '힘겨움'과 '즐거움'이 순환되는 삶의 본질을 강조했다.

※ 지문과 보기의 관계 : 동일

(지문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 지문: 이론, 보기: 사례)

- 보기는 지문에서 푸생이 신화를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는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는 지문에서 나타난 푸생의 그림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선지를 찾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일반해설】

(예술) '바로크'

지문해설 : 푸생이라는 작가의 예술에 대한 특징을 다룬 글이다. 그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이성적이고 지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의 영감을 고대 예술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했다고 치자, 그들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를 그렸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그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그는 그림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그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정서보다는 정신에 치우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결국 이 글은 감각적 표현에 중시한 바로크 미술에 대항하고 미술을 지적인 사고 행위로 끌어들이는 푸생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푸생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기의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원리를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그에 맞춰, 그림의 소재로 신화 혹은 성서 속 이야기를 채택했으며, 인물도 인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작품 속 공간도 기하학법칙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푸생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의식적인 작업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 화가 푸생의 작품 세계

※ 어휘 풀이

*결여 :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

*서사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일.

*배제 : 물리쳐서 제외함.

*인위적 :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기하학 : 도형 및 공간에 관한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부문.

*형상화 : 예술 활동에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냄.

*명료한 : 뚜렷하고 분명한

기본 독해

1단락	대상의 본질과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푸생
2단락	푸생 작품의 구성 특징
3단락	보편적인 삶의 원리가 나타난 푸생의 풍경화
4단락	지적이고 정신적인 푸생 작품의 미(美)

★ 푸생의 작품 구성과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감각적인 작품(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린 작품)보다 이성적으로 구성된 작품(머릿속에만 존재하는)을 그렸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자연 풍경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지적인 작업에 의해 구도, 구성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설정하여 그렸다.

① 17세기 프랑스 화가 푸생(N. Poussin)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인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크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1-④ 그는 **바로크 미술이 주로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지적인 사고가 결여된 예술 활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연성과 변화무쌍함을 멀리하는 대신,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영원불변성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의 고전성에서 미의 원리를 찾고자 했다. 왜냐하면 푸생은 이성이 자연의 보편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고대 그리스·로마의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고대 예술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② 그래서 1-⑤ **고대 예술의 주된 대상인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으며, 그것을 서사의 차원이 아닌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다. 또한 작품 속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고대 조각상 중에서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을 골라 인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화면은 오로지 이성의 법칙에 입각한 1-①,②,③ **균형과 대칭, 선이나 도형 등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구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짜임새 있는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고 했다.** 이는 **자연의 영원불변한 본질을 조화와 질서라고 생각하여 이를 그림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③ 이와 같은 표현 원리들을 통해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자 한 푸생의 노력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풍경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풍경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삶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의 풍경에는 자연 배경과 특별히 선택된 건축물이 등장한다. 작품 속 자연 풍경은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푸생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자연의 이미지이며, 고대의 건축물 역시 배경의 일부로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전경, 중경, 후경의 명백한 구분과 좌우상하의 대칭, 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인 공간 이행, 수평과 수직의 기하학적 질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 따라서 그는 영웅적 인물의 삶을 소재로, 자연에서 위대하고 특별한 것만을 선별하여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④ 이처럼 푸생은 작품 제작에 있어 자신이 정한 표현 원리들을 명료한 법칙으로 규정하여 모든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예술은 의식적인 작업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감상자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이라기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그림은 푸생의 '세월이라는 이름의 음악과 춤'이다. 그림의 오른쪽 기둥 옆에는 시간의 신, 왼쪽에는 젊음과 늙음의 두 얼굴을 가진 아누스 석상, 양쪽 아래에는 아기 등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원형으로 둘러서서 춤을 추는 인물들은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옷차림에 따라 '봄'(부), '여름'(즐거움), '가을'(가난), '겨울'(힘겨움)을 각각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1-③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의 본질을**, 그리고 '부'와 '가난', '힘겨움'과 '즐거움'이 순환되는 삶의 본질을 강조했다.

(2%) ① 그림의 양쪽에 '아기'를 배치한 것은 **대칭을 통해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 한 것이** 옳다.

※ 양 쪽에 같은 것이 배치된 것을 대칭이라 한다. 따라서 양 쪽에 같은 '아기'를 배치한 보기는 지문의 내용에 따라 **대칭을 통해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② 작가가 배치한 '석상'과 '기둥'은 수직선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 원리를 적용한 것이 옳다.

※ 석상과 기둥은 그림에서 수직으로 서 있다. 이것은 지문의 내용에 따라 **선을 활용해 기하학적 공간구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③ '원형'을 그리며 인물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순환이라는 영원불변한 본질을 드러내려 한 것**이 옳다.

※ 원형을 그리며 돈다는 것은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원(기하)을 통해 자연의 영원불변한 본질을 드러내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0%) ④ **작품 속 인물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옷차림'은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 옳다.

※ 즉흥적인 감정은 푸생이 비판한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다.

(3%) ⑤ 고대 조각상 중 **신화에 등장하는 '시간의 신'과 '아누스'**를 선택하여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 옳다.

※ 1-⑤ 참고

일반 해설

정답해설 : '즉흥적인 감정'이라는 어구로 쉽게 옳지 않은 선지가 4번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풀기가 수월했던 문제이다. 각 선지의 경우도 핵심 어구를 중심으로 근거문장을 지문에서 연결해 판단하면 된다. 1문단에서 푸생은 '바로크 미술이 주로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지적인 사고가 결여된 예술 활동으로 규정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대칭'을 활용해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고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그림에서 '석상'과 '기둥'은 수직선을 이용한 구성임을 알 수 있고, 2문단에서 '선'을 활용하여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인물들은 각각 봄·여름·가을·겨울을 상징하고, 작가는 이를 통해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의 본질을 강조했다고 했고, 1문단에서 푸생은 영원불변한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신화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고, <보기>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신'은 시간의 신이고, '아누스'는 젊음과 늙음의 두 얼굴을 지녔으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에 본질을 강조했다고 했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은 적절하다.

① 회화 작품에는 점, 선, 면, 형태, 색채와 같은 조형 요소와 통일성, 균형, 비례와 같은 조형 원리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들은 감상자에게 시각적으로 작용함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화*의 조형 원리 중 하나인 **통일성**은 화면의 여러 조형 요소들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질서를 갖추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② ① **회화의 통일성**은 시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 통일성**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각 조형*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나 규칙성 등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작품을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것으로 형태나 색채 등의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로 표현된다. **지적 통일성**이란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개념적인 것들이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통일성을 의미한다. 시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지는 않더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그와 관련된 것들로 그림을 완성하였다면 이는 지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인 통일성이 조형 요소의 형식적 질서라면, 지적인 통일성은 내용에 대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③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인접, 반복, 연속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인접**은 각각 분리된 요소들을 가까이 배치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는 일도 몇몇 특정한 별들을 인접시켜 해석함으로써 형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문자를 인접시켜 단어를 만드는 것도 통일성의 질서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복**은 부분적인 것들을 반복시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반복되는 것에는 색깔이나 형태, 질감은 물론이고 방향이나 각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속**은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연관성을 갖고 이어지게 하여 통일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연관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길은 어떤 것에서 연관된 그 다음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가게 된다. 시각적으로는 형태나 색채 등이 화면에서 연관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적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서로 연결되며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④ 통일성은 작품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형 원리이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작품 속의 다양한 조형 요소와 그 조형 요소들이 이루는 일관된 질서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했을 때 감상자는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에 한발 더 다가서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①과 관련하여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너도밤나무 숲」

㉠클림트의 「너도밤나무 숲」은 화면의 근경에서 원경에 이르기까지 점점 작아지는 수직의 너도밤나무들을 반복하여 표현했다. 각각의 나무들은 개별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의 모습으로 보이며 시각적 연관을 통해 통일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 등 가을과 관련한 황금 색깔로 배경을 가득 채워 늦가을 숲의 정취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지문과 보기의 관계 : 동일

(지문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 사례-그림에 적용, 지문: 이론, 보기: 사례)
- 보기의 이론을 지문의 그림과 설명에서 연결지어 푸는 문제이다. 3단락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잘 연관짓도록 한다.

【일반해설】

데이비드 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지문해설 : 회화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문이다. 회화의 통일성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 통일성과 지적 통일성이다. 시각적 통일성은 시각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를 반복하여 그림에 그리면 시각적인 통일성을 갖게 된다. 지적 통일성은 의미 상으로 비슷한 것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십자가와 성경, 성모 마리아 등을 반복하여 그림에 그리면 지적 통일성을 갖게 된다. 시각적 통일성이든지 지적 통일성이든지 이러한 대상들은 모두 인접, 반복, 연속 등의 방법으로 구현된다. 즉, 동그라미를 가까이(인접), 반복, 연속해서 그림으로써 시각적 통일성을 구현하고 기독교에 관한 것을 인접, 반복, 연속해서 그림으로써 지적 통일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 하면 좀 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다.

[주제] 회화의 통일성에 대한 구현 원리와 의의

※ 여허 풀이

- *회화 :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 상에 형상을 그려 낸 것. 그림.
- *조형 : 어떤 형태나 형상을 만들.
- *개념 :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한 하나의 관념.
- *형상 :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형상(形相)
- *구현 :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냄.
- *유기 : 생물체처럼,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일.

기본 독해

1단락	회화에서 통일성의 개념
2단락	회화에서 통일성의 종류
3단락	통일성을 구현시키는 방법
4단락	통일성의 의의

★ 회화에서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문이다. 시각적 통일성과 지적 통일성, 그리고 이들을 구현시키는 반복, 인접, 연속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며 독해하도록 한다.

① 회화 작품에는 점, 선, 면, 형태, 색채와 같은 조형 요소와 통일성, 균형, 비례와 같은 조형 원리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들은 감상자에게 시각적으로 작용하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화의 조형 원리 중 하나인 통일성은 화면의 여러 조형 요소들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질서를 갖추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② ① 회화의 통일성은 시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 통일성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각 조형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나 규칙성 등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작품을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것으로 형태나 색채 등의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로 표현된다. 지적 통일성이란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개념적인 것들이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통일성을 의미한다. 시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지는 않더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그와 관련된 것들로 그림을 완성하였다면 이는 지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인 통일성이 조형 요소의 형식적 질서라면, 지적인 통일성은 내용에 대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③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인접, 반복, 연속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인접은 각각 분리된 요소들을 가까이 배치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는 일도 몇몇 특정한 별들을 인접시켜 해석함으로써 형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문자를 인접시켜 단어를 만드는 것도 통일성의 질서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② 반복은 부분적인 것들을 반복시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반복되는 것에는 색깔이나 형태, 질감은 물론이고 방향이나 각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속은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연관을 갖고 이어지게 하여 통일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연관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길은 어떤 것에서 연관된 그 다음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가게 된다. 시각적으로는 형태나 색채 등이 화면에서 연관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적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서로 연결되며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④ 통일성은 작품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형 원리이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작품 속의 다양한 조형 요소와 그 조형 요소들이 이루는 일관된 질서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했을 때 감상자는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에 한발 더 다가서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①과 관련하여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너도밤나무 숲」

㉠ 클림트의 「너도밤나무 숲」은 화면의 근경에서 원경에 이르기까지 점점 작아지는 수직의 너도밤나무들을 반복하여 표현했다. 각각의 나무들은 2-③, ④ 개별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의 모습으로 보이며 시각적 연관을 통해 통일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 등 가을과 관련한 황금 색깔로 배경을 가득 채워 2-③ 늦가을 숲의 정취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① ㉠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갈수록 나무의 형태를 확대하여 시각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확대는 통일성과 관련이 없다.

(83%) ② ㉠은 곧게 뻗은 나무의 수직적인 형태를 반복하는 반복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2-② 참조

(3%) ③ ㉠은 나무 하나하나의 모습을 개별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연속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2-③ 참조

(5%) ④ ㉠은 바닥에 떨어진 낙엽과 서 있는 나무를 분리하여 서로 멀리 배치하는 인접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보기에서 낙엽은 배경을 가득 채워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쓰였다는 내용만 나온다.

(2%) ⑤ ㉠은 작품을 보는 순간 직접적으로 보이는 낙엽의 황금 색깔을 통해 계절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보여 주는 지적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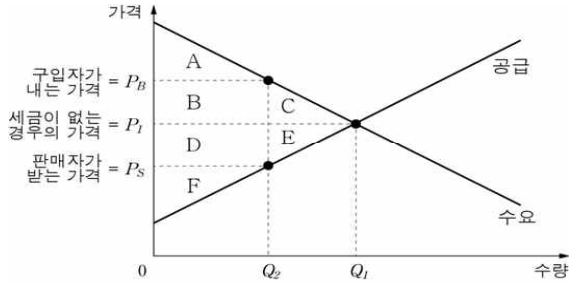
※ 보기 그림의 주제는 늦가을 숲의 정취이다.

일반 해설

정답해설 : 반복은 부분적인 것들을 반복시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클림트의 「너도밤나무 숲」은 곧게 뻗은 나무의 수직적인 형태를 반복하는 반복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다.

①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득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② <그래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_1 이고 균형 거래량은 Q_1 이다. 균형 가격 P_1 , 균형 거래량 Q_1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래프>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 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 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 이다.

③ <그래프>에서 ① 세금이 $P_S P_B$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_1 에서 P_B 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_1 에서 P_S 로 낮아져 F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_1 에서 Q_2 로 감소한다. $P_S P_B$ 에 Q_2 를 곱한 값인 $B+D$ 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B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 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 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 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수실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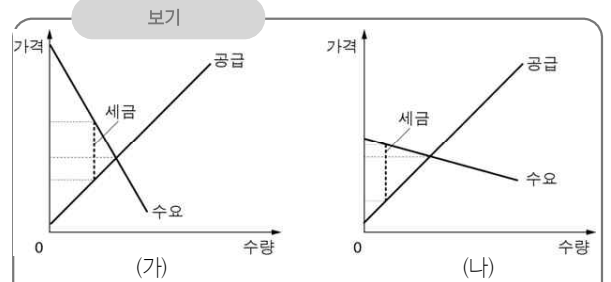
④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수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수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 마찬가지이다.

⑤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실은 경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수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잉여: 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생산자 잉여: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3.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는 동일한 크기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세금 부과 이전의 (가), (나)의 균형 거래량은 동일했다. (가), (나)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가),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 지문과 보기의 관계 - 동일

(지문에 나온 이론을 보기에서 그래프를 이용해 구체화. 지문 : 이론, 보기 : 그래프)

- 보기는 수요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세금에 따른 조세 수입과 잉여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지문에서 설명한 A~F의 영역이 보기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넓이를 비교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일반해설】

(사회) 김경환, '조세의 경제적 비용'

이 글은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금 부과로 인해 경제적 순수실이 발생하며, 이 경제적 순수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매우 복잡한 그래프가 제시되었지만 지문의 그래프에서 A~F 영역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지문이해의 핵심이다. 단순히 C+E는 경제적 순수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비자 잉여는 A를 나타낸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며 지문을 독해한다.

주제 :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 지문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경제적 순수실 등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이해를 하기가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적 독서보다는 그냥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정리하는 쪽으로 독해를 해야 한다. 결국 글 전체의 주제는 경제적 순수실을 중심으로 한 세금의 영향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어떤 손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한 글이다.

※ 어휘 풀이

*조세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

*용의 :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 마음.

*완만 : 가파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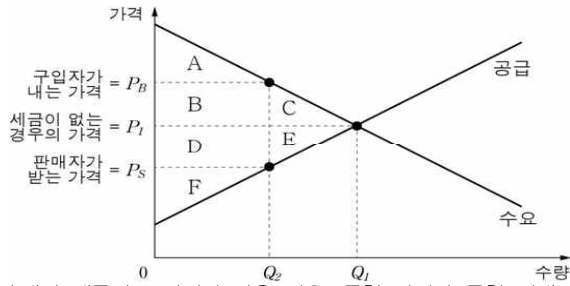
*증진 :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져 나아감. 또는 나아가게 함.

기본 독해

1단락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2단락	세금 부과 전의 수요와 공급 곡선
3단락	세금 부과 후의 수요와 공급 곡선
4단락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경제적 순수실의 변화
5단락	세금 부과에 대한 정치적 논쟁

★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순수실을 중심으로 설명한 글이군.

①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② <그래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_1 이고 균형 거래량은 Q_1 이다. 균형 가격 P_1 , 균형 거래량 Q_1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익이 극대화된다. <그래프>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 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_1 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 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 이다.

③ <그래프>에서 ① 세금이 $P_S P_B$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_1 에서 P_B 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 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_1 에서 P_S 로 낮아져 3-① F 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_1 에서 Q_2 로 감소한다. $P_S P_B$ 에 Q_2 를 곱한 값인 3-② $B+D$ 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3-③ B 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 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 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 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3-④ $C+E$ 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수실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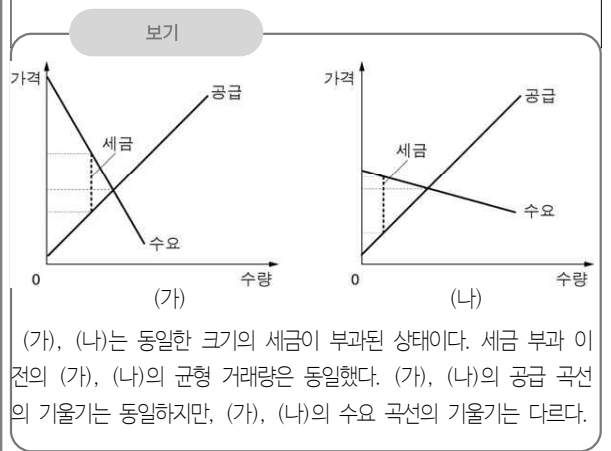
④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3-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3-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수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수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⑤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실은 경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수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잉여: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생산자 잉여: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3.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는 동일한 크기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세금 부과 이전의 (가), (나)의 균형 거래량은 동일했다. (가), (나)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가),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 지문의 A~F 도형의 위치를 보고 보기와 비교하여 도형의 넓이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문제풀이 방법이다.

(7%) ① 생산자 잉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생산자 잉여는 지문에서 F 이다. (나)가 그 크기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74%)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조세 수입은 $B+D$ 영역이다. (가)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7%)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B 이다. (가)가 크다.

(5%)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수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 경제적 순수실은 $C+E$ 이다. (나)가 더 크다.

(4%)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 이 선지는 근거문장으로 푸는 것이 더 쉽다.

동이의형의 원리 (같은 뜻 다른 표현)

지문 : 가격 탄력성 -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 선지 : (나)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 (나)가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 해설

정답풀이 : 어려운 문제 같지만 지문의 그래프와 보기의 그래프를 잘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부과된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공급 곡선이 동일할 때, (가)는 (나)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더 크다.

[오답풀이] ⑤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다.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것이다.

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데 이를 **계약**이라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지만,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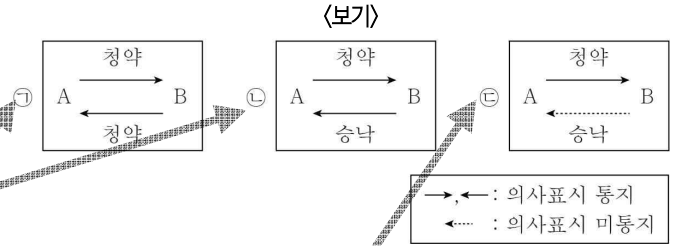
②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을 받은 이가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한다. 만약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된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표시 담긴 말을 ㉠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③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을 후,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또한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가령 모임에서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A는 자동차를 천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B에게 보냈다고 하자.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천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A, B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④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승낙: 기간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청약이 효력을 보유하는 기간.

4. 앞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지문과 보기의 관계 - 동일 (지문의 이론을 보기에서 도식화)

-지문에서의 합치와 교차청약, 의사실현 등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중, 어느 것이 교차청약, 의사실현 등을 나타낸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일반해설】

사회 (출전) 명순규, 「민법학원론」

이 글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하는 계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될 때 효력을 발생시키는 지 경우에 따라 설명한 글이다. 먼저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절차를 거친 후 성립된다. 하지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승낙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소실된 경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약자가 해주어야 한다. 이 지문은 계약의 성립에 대해 청약과 승낙, 의사실현과 교차청약, 배상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독해하여야 한다.

[주제] 계약의 성립 조건

- ※ 어휘 풀이
- *합치 : 의견·주장 등이 서로 일치함.
- *연착 : 정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함.
- *간주 : 상태·모양·성질 따위가 그렇다고 여김.
- *이행 : 실제로 행함.
- *유효 : 효과나 효력이 있음.
- *시가 :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
- *차액 : 차이 나는 액수.

- ※ 굵은 큰 글씨 : 글 전체의 제재
- ※ 네모 칸 : 중요 소재
- ※ 밑줄 : 각 단락의 소주제

기본 독해	
1단락	계약의 정의
2단락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한 계약의 실현
3단락	승낙을 통지 않은 계약의 성립, 의사실현, 교차청약
4단락	매매 대상의 소실에 따른 배상

★ 법적인 계약의 성립을 설명한 글이다.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약자와 승낙자의 의견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서로 계약 성사를 하자고 말하는 순간 성사된다. 예약도 승낙의 의미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없이 예약만 신청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서로 청약만 했을 때에도(승낙이 없는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따로 누군가 승낙을 하지 않아도 서로 팔고 사겠다는 내용(청약)만을 전달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데 이를 '계약'이라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지만,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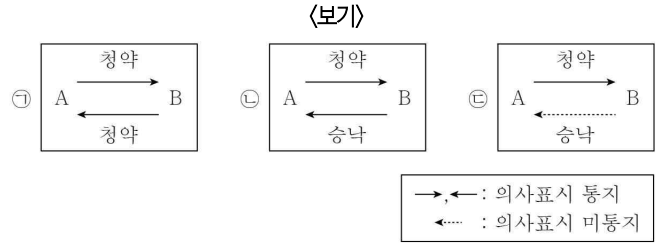
②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을 받은 이가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한다. 만약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된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4-③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락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③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4-⑤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을 후,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4-④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또한 4-②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가령 모임에서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A는 자동차를 천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B에게 보냈다고 하자.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천만 원에 사겠다는 4-①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A,B에게 모두 도달할 때에 성립한다.**

④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승낙: 기간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청약이 효력을 보유하는 기간.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은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함.
 - ㉠은 교차청약, ㉡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나타낸 것이다.

(59%) ① ㉠의 경우, A가 B에게, B가 A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각각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의사표시를 발송했을 때가 아니라 도달했을 때 성립된다.

(6%) ② ㉡의 경우,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지만 두 청약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동의이행의 원리 (같은 뜻 다른 표현)
 지문 : 결과적으로 일치 = 선지 : 결과적으로 합치

(4%) ③ ㉢의 경우,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낙의 의사가 담긴 B의 말을 A가 들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4-③ 참고

(20%) ④ ㉢의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오답률에 비해 근거문장으로 쉽게 옳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선지이다. 보기의 ㉢에서 점선이 의사표시 미통지라는 것을 이해 못해 5번과 함께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았었다. 4번 선지의 내용은 5번 선지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은 단순히 승낙자가 아직 의사표사를 전달하기 전이라는 뜻이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미통지 되었어도 나중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9%) ⑤ ㉢의 경우,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도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은 3단락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일반 해설

정답해설 : 보기의 ㉠~㉢이 지문의 어느 내용에 해당하는지만 파악하면 근거문장을 통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은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3문단에서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② 3문단에서 교차청약은 두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2문단에서 이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3문단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우리가 흔히 건반 악기라고 부르는 **피아노**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반으로 연주하는 현악기이다.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으로 생성된 음이 음향판에서 증폭되어 특유의 음색*을 가진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기준으로 피아노에서 특유의 소리가 나기까지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 살펴보자.**

② 우선 피아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액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건반마다 하나씩 있는 **액션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우선 액션은 **건반을 누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액션에 있는 해머가 현을 때리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둘째, 건반을 누를 때에는 해당 현의 댄퍼가 현에서 떨어지게 했다가 손을 건반에서 뺄 때 댄퍼가 현에 다시 붙게 한다.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머에 의해 진동을 시작한 현이 계속 진동할 수 있게 하고, 그 건반에서 손을 떼면 댄퍼가 다시 현에 붙도록 하여 다른 현이 진동할 때 공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해머가 현을 때리는 즉시 액션은 해머를 현에서 이탈하게 한다. 액션이 이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만약 해머가 현을 때리고 곧바로 떨어지지 않거나, 해머가 현을 때린 후 그 반동으로 인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해머의 방해로 현이 자유롭게 진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건반 하나에 액션은 하나가 대응하지만 현은 그렇지 않다. **건반 하나에 같은 음높이로 조율된 여러 개의 현들이 대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저음부에는 해머 하나에 같은 음높이의 현이 1~2개씩 대응되어 있고, 중고음부에는 2~3개씩 대응되어 있어 해머가 한 번에 여러 개의 현을 때릴 수 있다. 그에 따라 같은 음높이를 가진 현이 여러 개 진동하므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은 현과 음향판을 잇는 역할을 하는 브리지를 거쳐 음향판으로 전달된다. **음향판**은 현의 진동을 전달 받아 공기와의 접촉면을 넓혀 음량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음향판에는 향봉이 부착되어 있어 음이 음향판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음향판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④ **피아노의 페달** 역시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 특정 역할을 수행하여 음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피아노의 세 페달 중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댄퍼 페달**이라고 한다. 이 페달을 밟으면 모든 현에서 댄퍼가 일제히 떨어지게 된다. 만약 댄퍼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른다면 현의 진동은 건반을 누르지 않은 다른 현에도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건반에서 손을 떼도 이 같은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댄퍼 페달은 연주된 음을 지속적으로 울리게 하여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효과를 낸다. 왼쪽 페달은 **소프트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 페달을 밟으면 해머가 한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해당 건반의 해머가 때리는 현의 수를 3현은 2현으로, 2현은 1현으로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음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운데 페달은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를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댄퍼만이 현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음색에 변화를 줄 수 있다.

5.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문과 보기의 관계 : 동일

(지문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 사례-그림에 적용, 지문: 이론, 보기: 사례)

- 보기는 지문에서 댄퍼 페달의 역할을 악보를 활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주로 지문의 근거문장을 토대로 옳은 선지를 가리도록 한다.

— < 보 기 > —

※ 단, ㉔를 연주할 때부터 댄퍼 페달을 밟았다가, ㉔를 연주하기 직전에 댄퍼 페달에서 발을 뺀다.

【일반해설】

(예술) 이석원, 「음악음향학」

액션, 댄퍼 등 생소한 피아노 구성요소의 용어가 나와서 이해가 어려운 지문이다. 구성 요소와 그림이 함께 제시되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지만 그림이 제시되지 않아 언뜻 읽으면 각 구성요소의 역할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 아래 독해 포인트에 따라 지문을 이해하면 좀 더 수월하게 독해를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랜드 피아노를 기준으로 피아노에서 특유의 소리가 나기까지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아노의 핵심 장치인 액션, 현, 음향판, 세 개의 페달, 댄퍼 등을 들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 : 그랜드 피아노의 음향 원리

※ 독해 포인트

㉔ 피아노 구성 요소

건반 → 액션 → 해머, 댄퍼 → 현 → 음향판

※ 어휘 풀이

*음색 : 발음체가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높낮이가 같아도 악기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소리의 특성. 음빛깔.

*액션 : 피아노 등 건반 악기의 기계 장치.

*공명 : 발음체(發音體)가 외부 음파(音波)에 자극되어 이와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현상.

기본 독해

1단락	피아노의 음향 구성 요소
2단락	액션의 역할
3단락	액션과 현의 대응, 음향판의 역할
4단락	페달의 역할

★ 피아노의 구성 요소에 따른 음향의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액션, 댄퍼를 중심으로 음향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액션은 해머와 댄퍼를 조종해 현을 진도시키는 장치이다. 해머는 현이 진동을 하게끔 충격을 가하는 것이고 댄퍼는 그 진동에 따른 공명을 막는 역할을 한다.)

① 우리가 흔히 건반 악기라고 부르는 피아노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건반으로 연주하는 현악기이다. 건반과 연결된 해머가 현을 때리면 현이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으로 생성된 음이 음향판에서 증폭되어 특유의 음색을 가진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기준으로 피아노에서 특유의 소리가 나기까지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 살펴보자.

② 우선 피아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액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건반마다 하나씩 있는 액션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우선 액션은 건반을 누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액션에 있는 해머가 현을 때리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둘째, 5-② 건반을 누를 때에는 해당 현의 댄퍼가 현에서 떨어지게 했다가 손을 건반에서 떼 때 댄퍼가 현에 다시 붙게 한다.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머에 의해 진동을 시작한 현이 계속 진동할 수 있게 하고, 그 5-①, ④ 건반에서 손을 떼면 댄퍼가 다시 현에 붙도록 하여 다른 현이 진동할 때 공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해머가 현을 때리는 즉시 액션은 해머를 현에서 이탈하게 한다. 액션이 이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만약 해머가 현을 때리고 곧바로 떨어지지 않거나, 해머가 현을 때린 후 그 반동으로 인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해머의 방해로 현이 자유롭게 진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건반 하나에 액션은 하나가 대응하지만 현은 그렇지 않다. 건반 하나에 같은 음높이로 조율된 여러 개의 현들이 대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저음부에는 해머 하나에 같은 음높이의 현이 1~2개씩 대응되어 있고, 중고음부에는 2~3개씩 대응되어 있어 해머가 한 번에 여러 개의 현을 때릴 수 있다. 그에 따라 같은 음높이를 가진 현이 여러 개 진동하므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은 현과 음향판을 잇는 역할을 하는 브리지를 거쳐 음향판으로 전달된다. 음향판은 현의 진동을 전달 받아 공기와의 접촉면을 넓혀 음량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음향판에는 항봉이 부착되어 있어 음이 음향판 전체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음향판의 모양은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④ 피아노의 페달 역시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 특정 역할을 수행하여 음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피아노의 세 페달 중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5-②, ③ '댄퍼 페달'이라고 한다. 이 페달을 밟으면 모든 현에서 댄퍼가 일제히 떨어지게 된다. 만약 댄퍼 페달을 밟고 건반을 누른다면 현의 진동은 건반을 누르지 않은 다른 현에도 공명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건반에서 손을 떼도 이 같은 현상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댄퍼 페달은 연주된 음을 지속적으로 울리게 하여 음향을 풍부하게 하고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효과를 낸다. 왼쪽 페달은 '소프트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 페달을 밟으면 해머가 한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해당 건반의 해머가 때리는 현의 수를 3현은 2현으로, 2현은 1현으로 감소시킨다. 이를 통해 음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운데 페달은 '소스테누토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를 밟은 채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때린 현의 댄퍼만이 현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음색에 변화를 줄 수 있다.

5.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단, ⑥를 연주할 때부터 댄퍼 페달을 밟았다가, ⑩를 연주하기 직전에 댄퍼 페달에서 발을 떼다.

(7%) ① ㉓를 연주할 때, 건반을 손에서 떼 후에도 현은 계속 진동하게 되므로 ㉔의 연주 음과 부드럽게 연결된다.

※ ㉔부터 댄퍼 페달을 밟기 때문에 ㉓는 댄퍼 페달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㉓는 5-1의 근거문장에서처럼 건반에서 손을 떼면 댄퍼로 인해 공명을 하지 않게 된다. (=진동하지 않게 된다.)

(6%) ② ㉔를 연주할 때,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현만 댄퍼에 붙지 않으므로 댄퍼 페달을 밟지 않을 때보다 음량이 커진다.

※ 댄퍼 페달을 밟으면 모든 현에서 댄퍼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현만 댄퍼에 붙지 않는 것이 아니다.

(4%) ③ ㉔를 연주할 때, 건반을 매우 강하게 누른다고 해도 ㉔에서는 어떠한 현도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㉔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 ㉔는 쉼표이다. 따라서 모든 건반을 누르지 않은 상태이다. 댄퍼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건반도 누르지 않게 때문에 댄퍼가 모든 현에 붙어 있어서 어떤 진동도 일어나지 않고 소리도 안 날 것이다. 하지만 ㉔에서는 댄퍼 페달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현에 댄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소리가 난다.

(19%) ④ ㉓를 연주할 때에는 ㉓, ㉔와 달리 건반을 손에서 떼 후에는 해당 건반의 현 외에는 울리지 않게 된다.

※ ㉔는 댄퍼 페달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건반 외에 다른 건반의 현들이 공명하여 울리지만 ㉓는 ㉔와 같이 해당 건반의 현 외에는 울리지 않게 된다.

(61%) ⑤ ㉓를 연주할 때, 건반들을 누르고 있는 동안 해당 건반들의 댄퍼는 현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해당 음들이 서로 공명을 일으킨다.

※ 5번 선지의 해당 건반의 댄퍼를 모든 댄퍼로 착각하여 오답률이 올라간 선지이다. 당연히 건반을 누르면 액션에 의해 해당 건반의 댄퍼는 현에서 떨어지게 된다.

일반 해설

정답해설 : ㉓를 연주할 때, 댄퍼 페달에서 발을 떼다고 하더라도 건반들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건반들의 댄퍼가 현에서 떨어져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음들은 서로 공명을 일으키며 울리게 된다.

[오답풀이] ① ㉓를 연주할 때, 건반에서 손을 떼게 되면 해당 현에 댄퍼가 붙어 진동을 멈춘다. ② ㉔를 연주할 때부터 댄퍼 페달을 밟으므로 일제히 모든 현에서 댄퍼가 떨어지게 된다. ③ 댄퍼 페달을 밟고 있으므로 ㉔에서 일어난 진동은 ㉔에서도 계속된다. ④ ㉓를 연주할 때, 건반을 손에서 떼 후에는 댄퍼가 해당 현에도 붙게 되므로 해당 건반의 현도 울리지 않게 된다.